



[협회소식]

◆ Welcom New Members (2005.11) : 1개사

* 신규회원이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이사	전화번호	주 소	회원종류
공간찬넬(주)	이 두 순	02-701-1188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43	통상회원

◆ 제2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지난 9월 9일 『제2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이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www.kopal.or.kr, 회장 이병성) 주관하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물류표준화 우수기업에게 시상하는 『제2회 한국 파렛트·컨테이너 산업대상』은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후원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업체들은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표준화 선도기업으로, 물류표준화설비 생산 및 사용부문에서 우수한 업체이다.

이날 수여한 분야별 수상은 파렛트 부문으로 내쇼날푸라스틱(주), 영림목재(주), 삼영물류(주), 샘표식품(주)의 4개업체, 컨테이너분야에 이견산업(주), (주)세화파렛텍, (주)두산 식품BG, 통일고랭지채소영농조합법인, 진부농업협동조합의 5개업체, 공로상에 한국파렛트폴(주) 서병륜 대표가 수상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제2회째 맞이한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국내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표준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우수업체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하여 물류효율화와 일관수송시스템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파렛트컨테이너기술연구소 이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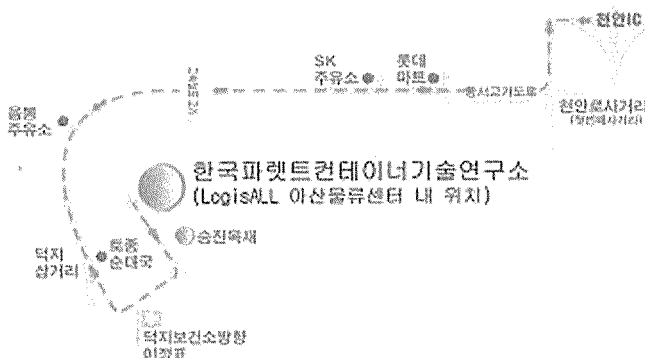
회원님께 더욱 만족스런 서비스와 시험의 안정성을 위해 하기의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아산 기술연구소는 50평 규모로 기존의 파렛트 휨 종합시험기, 충격 종합시험, 낙하시험기 등 외에 장기 시험용 설비를 새로 구입하고 기존의 시험설비를 추가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시험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한국파렛트컨테이너기술연구소) 임직원 일동은 좀더 좋은 환경에서 더욱 완벽하고 신뢰성있는 시험결과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과, 파렛트와 컨테이너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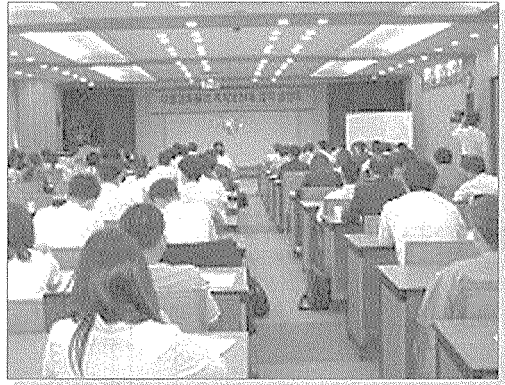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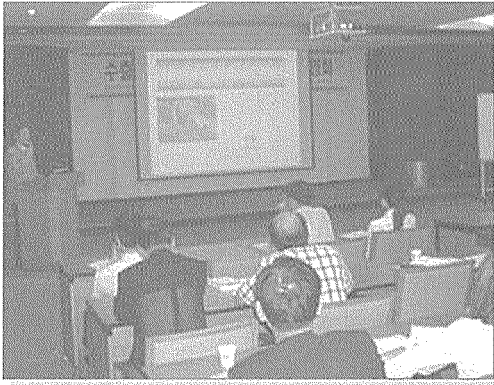
- 하 기 -

1. 이전일시 : 2005. 10. 5
2. 이전장소 : 충남 아산시 응봉면 덕지리 333-5번지(LogisALL 아산물류센터 內 위치)
3. 문의사항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02)715-1281 ~ 2,
<http://www.kopal.or.kr>



◆ 수출입화를 목재포장재 검역설명회 개최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목재포장재 검역” 각 국가별 검역기준 달라 수출업체 주의 필요



지난 9월 6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립식물검역소,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한국중량물포장협회, 등이 공동 주관해 개최된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에서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등 각 국가별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립식물검역소 방재과 박민구 검역관은 ‘수출화물용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 49개국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구 검역관은 “이들 검역실시 국가에서는 목재포장재 검역관련 국제기준인 ISPM No. 15의 규제지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관적이지 않아 수출기업에서 수출상대국가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ISPM No. 15에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으로 열처리와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등 두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열처리 방법은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MB훈증은 최저온도가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각 온도에 따라 약품의 투여량을 달리하여 최소 16시간 이상의 노출시간을 가져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ISPM No. 15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에 대해 각 국가별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중국의 경우는 침엽수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MB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물위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는 9월 16일 이후 미국내 도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비가공된 목재포장재가 대상이 되며 국제기준에 따라 열처리, MB훈증이 인정되며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는 비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피를 제거해야 하며 해충 및 해충가해 흔적이 없어야 한다. 열처리와 MB훈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화물에 적용된 비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와 MB훈증을 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야 통관이 되며 이를 어길 시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비가공 목재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판, 파티클보드 등의 목재산물로 구성되어 만든 가공목재포장재나 철재상자, 종이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중량물포장협회 김형빈 부회장이 발표한 ‘목재포장재 대체용기 및 크레임’에서는 목재포장재의 대체용기 개발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프레스우드를 사용한 용기, 단판적층재(LVL) 및 합판을 사용한 용기 등의 가공한 나무를 사용한 용기나 철재 상자 및 파렛트, 종이용기류 등의 소개와 함께 이들 대체 용기들을 혼합하여 사용한 용기 등이 제시되어 관심을 얻었다.

김형빈 부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대상국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크레임 사례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